

회원 4천여명 ... 2000년대 노벨상 도전

한국분자생물학회

올해로 창립 10돌을 맞는 한국분자생물학회는 현재 회원이 4천명이 넘는 국내 최대 학회중의 하나로 학술대회, 심포지엄, 주제강연, 포스터발표, 기기전시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펴오고 있다.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Molecules and Cells」는 국제 과학잡지 인용목록에 등재되어 국제적인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잡지에 회원들의 논문발표가 늘어나고 있어 2000년대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탄생도 기대되고 있다.

20세기가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밀 전자공학의 발전이 모든 산업발전을 주도해 인류의 생활방식을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유전공학이라 일컬어지는 생명공학산업이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암, 유전병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에 새로운 장을 만듦으로써 생명과학 관련 산업이 21세기의 산업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학술지는 '국제적' 인정

이와 같은 생명과학산업 발전을 뒷받침 해주는 핵심적인 학문이 분자생물학이며, 1953년 Watson과 Crick이 모든 생물의 유전정보 저장체인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밝힌 것을 새로운 분자생물학 발전의 시작으로 볼 때 불과 5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발전한 학문이 분자생물학이다.

또한 분자생물학은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뿐만 아니라 농학, 의·약학, 식품학, 화학 등 지금까지 세분화 추세로 가던 생명과학 관련 학문을 하나의 학문분야로 묶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학문으로서 모든 생명공학 내지는 생물과학 관련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인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89년 4월 한국분자생물학회가 창립되었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되었다.

지난 10년동안 본 학회는 회원수 3백40명에서 4천명이 넘는 국내 최대 학회 중의 하나로 급성장하였으며 학회지 「Molecules and Cells」가 국내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과학잡지 인용목록(SCI)에 등재됨과 동시에 국제적인 저명출판사인 Springer-Verlag에 의해 출판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본 학회는 창립 당시에 서울



趙武濟

〈한국분자생물학회회장/경상대 생화학과 교수〉



제10회 겨울모임 (Winter conference, 1999)

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내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현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 학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모든 학회 업무와 회원 관리를 전산화시킴으로써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학회체제를 구축하였다.

올해부터는 학회에서 발표할 논문 초록을 학회의 Web site를 통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신상변동 역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학회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목암생명과학상’ 등 시상

본 학회는 강원, 대구·경북, 대전·충청, 부산·경남 및 호남·제주 등 5개의 분회를 두어 각 지역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학회가 의·약학, 농·수산, 동·식물·미생물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분자생물학분과, 분자바이러스학분과, 리보핵산분과 등을 두어 각 분야

별 회원들간의 학술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본 학회의 학술활동으로는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결과와 신진 연구원들의 실험결과를 소개하는 겨울모임 (Winter Conference), 지역분회에서 주관하고 특별한 주제를 설정하여 심포지엄 형태로 진행하는 춘계 학술대회, 국제적인 저명연사들을 초청하여 주제강연·심포지엄·콜로퀴움·포스터발표·기기전시회 등의 학술행사를 하는 추계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한 생명과학 분야 연구업적 중 가장 탁월한 자에게 수여하는 ‘목암생명과학상’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상으로 발전하였으며, 본 학회지 「Molecules and Cells」에 발표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대해 수상하는 Molecules and Cells상,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우수 Poster 발표상 등 다양한 수상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학회 회원들, 특히 대학원생들을 포

함한 젊은 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1901년 노벨 생리 및 의학상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세계 17개국에서 1백65명의 수상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중 반 이상이 분자생물학 분야 관련 연구업적들이다.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업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연구업적들을 현재로서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분자생물학회 회원중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인 「Nature」나 「Science」에 논문을 발표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00년대에는 우리 한국분자생물학회 회원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학회의 모든 집행부 임원들과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㉟